

민주, 이용호 입당 외면 당 안정화에 속도

민주당 이번주말 대선 선대위 출범식
남원임실순창 이 의원 국민의힘행에 떠들썩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위원장 선출 방향 관심

서울=강영희 기자

국회 이용호(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과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당장 이 의원의 입당 효과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호남 교두보 확보 모양새는 갖춰졌으나 남원임실순창 등 지역 여론 결집과는 미진할 것이란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과 무관하게 당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호 의원 복당이라는 거대 변수가 사라진 만큼 지역위원장 선출 방향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전북대 진수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는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전북 지역 선대위는 만 18세 이상의 10대부터 2030세

대를 대표하는 도내 청년 인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활력 넘치는 선대위로 꾸리겠다는 계획을 일찍부터 밝힌 바 있다. 김성주 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청년 인사들을 공동 선대 위원장으로 임명, 민주당에 활기를 불어 넣고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선대위원영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청년 세대들과 수평적인 자세에서 김 위원장이 지원하며 정책 공약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다. 또 도내 국회의원들은 상임 선대위원장 직책은 유지하되 각 지역에서 민심을 보듬는 하방정치를 전개하기로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주 이재명 후보의 2박 3일간 전북 방문 효과가 선대위 출범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용호 의원을 향한 지역내 비토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는 8일 논평을 통해 '변절자 이용호는 더 이상 남원임실순창 주민들을 우호하지 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가 8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정문에서 김건희 추가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당시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공보에까지 문제 인정부를 뒀다는 위장된 '민주당 마케팅'으로 지역주민을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역과 당의 안정을 위해 지역위원장 문제를 대선 이후에 논의하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오로지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국힘당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가 국힘당을 선택하며 늘어놓은 말은 모두 꾀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지역

주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남원·임실·순창 지역민들께서 바라시던 민주당 복당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국민의힘 입당 결정 이후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며, 저와 함께 해주시기로 했다"면서 "시간을 좀 더 주시고, 행보를 잘 지켜봐달라.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경제활동 자립 지원 기여 기대"
'여성·장애인 창업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 장애인 창업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8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이번 법개정이 창업시장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여성·장애인 창업 기업에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보조,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창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청년 창업기업만이 우대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결혼과 출생,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여성과 장애인의 활발한 창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김제·부안 현안 사업 착착 해결
주요 현안 사업 예산 748억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김제 부안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폭넓은 국가예산 확보 소식을 전했다.

8일 이 의원에 따르면 김제시·부안군의 28개 주요 현안 사업 예산 748억원(총사업비 1조 4,119억원)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 최종 확정·반영됐다. 이 가운데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김제·부안의 11개 사업을 포함 13개 사업 예산 219억원을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증액·반영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실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한 13개 사업(총사업비 4,897억원)은 김제시·부안군이 오랜 기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던 사업들로 이 의원의 치밀한 대응과 적극적인 요청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원택 의원은 "김제·부안의 동반성장과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지역 주민들께 약속했던 만큼,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들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에 예산안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돈승 위원장, 서울평화문화대상 교육봉사대상 완주교육협력지구 구축 기여 인정

이돈승(62) 완주 교육거버넌스 위원장이 '2021 서울평화문화대상 교육봉사대상'을 받는 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일교와 수도일보가 주관하고 서울평화문화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 정제계 및 교육분야에서 매년 우리 사회 발전과 평화에 기여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 시상한다. 시상식은 10일 서울 KNK 디지털타워에서 열린다.

교육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돈승 위원장은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교육, 로컬에듀 특화교육 프로그램 실천을 통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완주 교육협력지구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완주교육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완주군과 완주교육청과 협



의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유·초·중·고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100% 시행한 첫 지자체가 되는데 견인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돈승 위원장은 "교육이 바로 서고, 학교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밝다"며 "이번 교육봉사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완주지역 학생들의 창의교육, 로컬에듀 등에 열과 성의를 다해 완주군이 교육 으뜸도시이자, 건강한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교과와 전북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이 위원장은 전북대 총학생회장, 보훈감독원 노조위원장,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원회 행정관, 새천년민주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통합민주당 벤처기업특위 위원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대 총선 민주당 안호영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문재인 후보 완주군 선대위 총괄본부장, 완주군 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지냈다.

윤준병,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나서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윤 의원은 8일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고착화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방 소재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 문제를 넘어 경영마저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



부정책은 예산, 일자리, 산업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정부부처 간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 한데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계획, 재원 확보 등의 사항들이 명시돼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분명치 않아 지방대학 지원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과 지역소멸이라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생학습관에서 **놀다! 웃다! 나누다!**

익산시 평생학습관·문해교육센터





운영일시 평일 : 09시~18시(화,목 9시~21시)
*주말,법정공휴일 휴관

문의전화 063-859-5823

오시는길 익산시 선화로 133 (모현동1가)

익산에서 즐기는 세계여행!

익산시 글로벌 문화관



운영일시 화~일 10:00~17:00
*휴관 매주월요일, 1월1일, 법정공휴일

문의전화 063-859-5496

오시는길 익산시 중앙로 1길 50(익산역~서동시장 사이)



다함께 익산시